

# 與 대선 경선, 호남 '적통' vs 영남 '가치' 연대 실현될까

(이낙연·정세균)

(이재명·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상위권 주자들 사이에 미묘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빅3' 중 이낙연(NY) 전 대표와 정세균(SK) 전 국무총리가 반(反)이재명을 고리로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크호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느슨한 연대를 형성했다.

공교롭게도 호남(이낙연·정세균) 대 영남(이재명·추미애) 구도다. 단순히 출생지에 따른 무늬만 지역 구도일 수 있으나 경선 전개에 따라 이른바 '적통론'과 '가치론'으로 변환된 형

대로 호남 후보와 영남 후보간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경선판에는 이 지사의 '바지' 발언 여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JTBC와 MBN 주관 2차 TV토론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여배우 스캔들을 거론한 것에 대해 "내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우스운 이 지사의 답변이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좀 더 진솔하고 겸손한 소명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지적했고, 정 전 총리도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로서 의외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美) 점령군' 발언을 비롯한 이 지사의 일련의 발언과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양측은 협공을 한 바 있다.

오는 11일 예비경선(컷오프)로 현재 8명인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된 직후 이 지사가 독주하는 판을 흔들기 위해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인 것이다.

반면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때리기'와는 거리를 둔 채 독자 행보를 하고 있다. 5일 TV 토론에선 이 지사의 기본소득 말바꾸기를 비판한 박용진 의원을 향해 "윤석열을 갖고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건 원팀으로서 대단

## 호남주자 이낙연·정세균 vs TK주자 이재명·추미애 영남·호남주자론 킴백...지역정서 자극 댄 난장판

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지사 대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이른바 '명추연대(이재명-추미애)'가 회자되지만 이 지사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이 선명성을 내세워 '가치 연대'를 형성하고 이에 맞서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정통재 8명인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된 직후 이 지사가 독주하는 판을 흔들기 위해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인 것이다.

출신지로 보면, 이 전 대표는 전남 영광이며 정 전 총리는 전북 진안으로 호남의 양대 축인 광주전남과 전북 대선주자로 할 수 있다. 반면 이 지사는 경북 안동, 추 전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경북(TK), 영남 주자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DJ) 시절부터 민주당에 몸 담고 대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당대표를 지낸 '적통'라면 이 지사는 상대적으로 일천한 당력을 민주당 가치를 강조하는 행보로 커버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의 경우 DJ가 영입한 대구의 딸 호남 며느리를 자처하며 5선 의원과 당대표를 지낸 적통이면서 강성 지지층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가치형' 주자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앞서 민주당계 정당에서 정권을 획득한 방식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호남 주자였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충청권의 김종필 전 총리와 포철 신화의 박태준 전 총리와의 DJ 연합을 통해 첫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부산·경남(PK) 출신으로 호남 기반의 민주당 후보로 나서 승리했

다. 이후 민주당에는 대선 국면마다 꾸준히 '영남 필승론'이 회자돼왔다. 호남을 기반으로 영남 확장성을 통해 이기는 전략인 것이다.

다만 이번의 경우 종래의 영남 후보론과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이 모두 TK출신으로, 앞서 친노·친문을 대표하는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PK와는 결이 다른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대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지사가 지난 1일 안동에서 "영남 역차별"을 언급한 데다가, 이를 놓고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맹공을 퍼붓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이 자칫 영호남 지역정서에 불이 붙일 경우 이미 경선 연기 논란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민주당의 경선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與, 국힘 '여가부 폐지론'에 "국민 편 가르기 비열한 전략"

### 전혜숙 "이대남 분노를 정략적 이용하는 것 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 힘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전혜숙을 부추기고 있다며 연이어 비판했다.

전혜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젠더 갈등을 부추겨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영원한 지역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분열시킨 군사독재 정권의 지배 전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비열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전 의원은 "금융·승진·취업·정치 참여 등 거의 모든 사회 지표상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이대남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서도 "4.7 재보선 선거 이후 이 대표는

이대남 표심잡기에 집중했다. 당시 이 대표는 SNS를 통해 격한 설전을 벌이며 공격적인 발언으로 전혜숙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가부 폐지 공약은 양성평등 폐지 공약이다. 성폭력 피해자 구제 폐지 공약이다. 청소년과 위안부 할머니 보호 폐지 공약"이라면서 "2001년 여성부 설치의 양성평등의 가치를 외교, 안보, 경제, 복지 등 같은 국제적 의제들과 동일하게 다루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힘에 이런 철학은 없고 여신과 남심을 분열시켜 정치적 미덕을 보겠다는 썩수만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전 의원을 향해 "더이상 여성 이슈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라"면서 "청년세대의 분노를 여성이슈로 치환시켜 갈등을 조장하지 마시길 바

란다. 유 후보와 국민의 힘은 '벋나간 분노'를 멈추고 진정으로 민생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란다"고 이같이 적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양성평등 실현의 가치를 쉽게 무시하고, 사회적 화합을 외치면서 전혜숙을 옹호하려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남성 권리를 축소하고 각종 여성 편향 정책을 실시하며, 잘못된 페미니즘에 기반해 역차별 제도를 만들어 남녀 갈등을 야기한다는 '여가부 만행'의 가짜뉴스를 통해 여성혐오 현상까지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대남, 이대녀를 부각시키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이 아닌 사회적 화합, 양성평등 가치 실현, 인권 존중 사회를 만들어줄 대통령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윤석열·안철수, 첫 회동...탈원전 비판 '공감대'

### 安 "소형원전 프로젝트, 사비 털어서 대주고 있어"

### 尹 "SMR, 민간 부문 전용 잘되면 신뢰 가질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처음으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안 대표도 국민의힘 입당 과정을 밟고 있는 만큼, 윤 전 총장의 합당 등을 주제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2시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대표는 "어제 (윤 전 총장이) 만난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에서 소형원전 프로젝트를 하는데, 국가 정책과 달라서 연구비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라며 "제가 만든 재단인데 계속 그 일(프로젝트)을 추진하는게 국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적으로 좋겠다 생각해서 제 사비를 털어서 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며 "SMR(소형원자로모듈)이 민간 부문으로 전용이 잘 되면 핵폐기물 문제, 안전성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송전비용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유용한 아이디어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안 대표는 "너무 정확하게 알

고 계셔서 원자력 전문가와 대담하는 것 같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안 대표는 "사실 이 자리가 (2012년) 저희 대선 캠프가 있던 곳"이라며 "오면서 그 당시 초심을 생각하고, (윤 전 총장이) 초심을 간직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 때의 제 생각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